

‘당너머 한우’ - 이현복 농가

유기· 환경 축산을 대표하는 농가

서울지역본부과장오시창

자연과 벗하기 위해 축산을 시작한 당너머 한우(경기양평군양평읍소재)는 우리나라 친환경축산의 진도사라고 할 만큼 이현복 사장의 집념이 서린 농장이다. 한우 180두(빈식 110, 기세비육 70)를 사육하며 거세한우 1등급급을 판매하는 한우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의 원동력 BMW(Bacteria Mineral Water)

농장 친환경 축산의 원동력은 BMW(Bacteria Mineral Water)이다. 한우의 분(糞)을 이용한 유용한 미네랄 생물활성수를 사용함으로써 한우를 건강하게 사육하고 축사의 악취도 제거 하는 것이다. BMW는 ①우사환경개선(하루 1~2회 정도 안개분무 - 악취정감, 파리발생억제), ②한우 건강개선(항생물질 사용억제 및 질병감소), ③사료비· 노동력절감(장내미생물 발달로 사료효율증대,糞발효로 처리 노동력절감), ④자원 Recycling(노른 양질의 퇴비로 사용) 등의 효

과와 함께 축사 바닥은 몇 년간 분이 흙과 같이 발효되어 전혀 냄새가 없다. 33개월 770K원상 장기비육 시킴으로써 고납육을 생산하고 있으며 출하시기조건 폭은 자유롭게 조절하여 조금 여유롭게 출하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를 위해 친환경 축산을 시작한 95년 이후부터는 발정농기화를 이용하여 기의 봄에 분만하도록 프로그램화시켰으며, 한 번 입식된 소는 전혀 죽사 이농없이 일괄사육하는 시스템으로 사양관리를 실시한다.

바람직한 농부의 삶

가축은 제물이 아닌 생명체로 여겨 가축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야만 가축은 인간에게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생활이 ‘바람직한 농부의 삶’이라고 강조한 이사장을 통해 앞으로도 좋은 먹거리 생산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당너머한우’가 되길 기대해 본다.

